

세계기도정보

[스리랑카] 캔디에서 '부처 치아' 전시에 인파 몰려 4명 사망·2천명 실신
 [미국] 전 CDC 국장 "코로나19, 우한 실험실 유출...美 정부가 연구 자금 지원"
 [파키스탄] 첫 기독교인 여성 부청장 임명
 [유럽] 스페인·포르투갈 대규모 정전...비상사태 선포
 [네팔] 2020년 이후로 교회와 선교단체 15곳, 정부에 공식 등록돼
 [가나] 오순절교회, 교도소 시스템 변화 이끌면서 긍정적 효과 나타나
 [세계] 지난해 전 세계 74개 언어로 성경 첫 번역돼
 [대만] 기독교인들, 중국 군사적 압박에 대규모 기도운동으로 대응
 [동남아시아] 인신매매 조직, 선교사로 위장해 여성 피해자 동남아로 밀입국 유인
 [미국] 텍사스, '무슬림 도시' 건설 추진...주민들 강력 반대
 [모리타니] 기독교 박해 격화...기독교인 시신 거리 끌고 다녀
 [일본] 일본 거주 외국인들, 일본 교회 성장에 촉매제 역할

선교후원

현황

- ▶ 파 송 윤천석, 황나미(멕시코)
- ▶ 후 원 천준상(이숙영)-캄보디아, 김병렬(이미진)-말레이시아
 윤상혁(김나래)-인도네시아, 김상홍(조지현)-말레이시아
 우진호(김지현)-베트남, 윤요한(서사랑)-인도네시아,
 허수성(허인영)-태국
- ▶ 개척교회 부르심의교회(정연우목사), 경남교회(한덕숙전도사),
 물댄동산교회(김일석목사), 행복교회(정용수목사)
 보물상자, 어린이전도협회
- ▶ 기 관 해피가정사역연구소(서상복소장), 남부산동노회자립위원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이단대책), 위컴스, 어린이전도협회(서
 부산), 셀네트워크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행복한교회

담임목사 **김 성 철**
 47506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70번길 76
 T. 051-504-1128 F.051-504-1187



2025. 4
멕시코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행복한교회

바다를 넘어..

윤천석, 황나미 선교사(멕시코/파송)

까를로스의 믿음

3월 15일 토요일, 코스타리카를 떠나며 까를로스 목사에게 하비 목사님의 사택 건축과 멈춰 선 하비 목사의 예배당 건축에 필요한 경비가 얼마나 들지 조사해 나에게 알려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하비 목사님의 사택을 건축하고 멈춰선 성전 건축을 마무리 하고 싶은 나의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두 가지의 확증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나누었다. 그 후 하비 목사님을 함께 방문한 김 목사님께서 당회와 이야기를 나눈 후 하비 목사님의 사택 천장을 해주시기로 했다는 소식을 나누며, 하비 목사님의 사택 공사를 진행하자고 했다. 들어올 현금 9백만원 만큼 물건을 구입해서 일을 진행하라고 까를로스 목사님께 말했다.

4월 25일 토요일, 까를로스 목사로부터 1차 마무리된 사택의 사진과 영상들이 도착한다. 약 50평 크기의 사택이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약속한 현금으로 절대 지을 수 없는 모습이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까를로스 목사님, 제가 약속한 9백 만원으로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었습니까? 목사님, 누가 현금을 하셨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한다: “목사님, 제가 철물점을 하는 저의 아들에게 하이메 목사님께서 하비 목사님 사택을 건축하기로 결심했으니, 지금 당장 그분이 대금을 지불할 수 없을지라도, 일차적으로 외형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먼저 보내자고 말했습니다. 저의 아들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기쁘게 물건들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이렇게 1차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웃었다. 그리고 감사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그에게 말했다: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행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시고 잠시 기다려 주세요. 제가 아직 목사님만큼 믿음이 크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웃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자시다.

부르심 따라

4월 28일 월요일, 새벽부터 많은 메시지가 사진과 함께 도착한다. 치아파스 팔렌케 지역 교회에서 보내오는 메시지다. 올 1월에 그들이 배운 것을 지금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열매가 무엇인지 감사의 인사와 함께 나에게 나눈다. 우리는 작은 것을 뿌렸다. 하나님은 그것을 큰 열매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그렇다! 우리가 뿌린 것은 복음의 작은 씨앗이었다. 그러나 그 씨앗에 생명이 있었다. 그 씨앗에 우리의 헌신과 사랑, 열정이 있었다. 피 묻은 복음의 씨앗이 어린 영혼들에게 심겨지고 생각지도 못한 많은 열매들을 맺고 있다.

4월 12일 토요일, 메리다의 미겔 목사가 나에게 간증 하나를 나누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다: “저희는 현재 산 아토니오 교회에서 새로운 아들 14명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아이들에게 방과후 수업으

로 수학, 스페인어 그리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 아이들 대부분은 가정 안에 중독이나 가정 해체 문제를 겪는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5월 3일과 4일에 교회 전체가 함께하는 캠프를 열기로 하고, 이 어린아이들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자원들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부모님들이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모든 부모님들이 허락해 주셨고, 아이들 등록비가 채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교통편 렌트비였습니다. 캠프 장소는 산안토니오에서 110km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분의 뜻을 확인시켜 주시길 기도했고, 방금 한 통화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Tixkokob에서 사업을 하는 한 분이셨고, 우리 캠프 교통편을 기부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아내의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늘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사역을 맡기셨다면 반드시 공급도 함께 허락하신다”...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월 30일 수요일, 지난주에 있었던 주일학교 강습회를 책임진 그를 격려하기 위해 그와 통화를 했다. 그는 24명의 어린이들과 매주 4회 모임을 가지며 행복해하고 있다.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지만,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할지 고민하는 교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의견을 나누었다. 7월 첫 주는 베라크루스, 치아파스 그리고 메리다에 있는 헌신된 교회들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리고 내년부터 있을 치아파스 전도 집회를 위해 어떻게 지역교회에 전도자들을 세울지 의논하며, 교단과 지역교회의 도움을 요청할 예정이다. 수천 아니 수만의 전도자를 배출할 수 있다면, 그들을 통해 수만 아니 수십만명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내 마음속에 심겨진 꿈은 지역교회의 전도자들과 함께 하는 전도 대회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기간동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 주실 것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순종이다. 영혼 구원을 향한 내가 가진 이 뜻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새롭게 나를 돕는 자들이 지역 곳곳에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수천 명의 전도자를 배출하는 일은 나의 능력을 벗어나 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나누는 것이다. 끊임없이 울리는 나팔처럼 나는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고 또 그분의 확성기가 되어 외치길 소망한다.

4월 기도제목:

- 1.내년에 있을 메리다 어린이 전도 집회와 성인 전도대회를 위해 필요한 전도자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 2.하비 목사의 사택 공사와 멈춰진 성전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 3.악화하는 쿠바의 상황에서 쿠바의 목회자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며, 그들을 통해 쿠바 땅에 복음의 진보가 멈추지 않도록